

학업 외 역량	2023학년도 학사과정 학업외역량 공통문제(1)
	일반전형

문제	<p>[현재시각 2023년 5월 14일 오후 4시]</p> <p>정수는 알파고등학교 3학년이며 천문동아리 회장입니다. 동아리 지도교사는 안지원 선생님이며, 주요 행사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야간에 불빛이 적은 공터에서 하는 야외천문관측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는 학교행사, 날씨 등의 문제로 야외천문관측을 하지 못했고, 1학년 신입회원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학기 첫 야외천문관측을 내일(5월 15일) 밤에 가지기로 했고, 장소는 자동차로 1 시간 거리에 있는 야산 공터로 정했습니다. 일기에 보에 의하면 내일 밤 하늘은 맑고 습도가 낮아서 천문관측에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교통편은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일주일 전에 전세버스를 20만원에 예약했습니다. 전세버스는 학교 정문 앞에서 오후 8시에 출발하기로 했고, 계약 조건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출발 24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반액 환불, 출발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p> <p>어제(5월 13일) 오후, 정수는 2학년 후배로부터 내일(5월 15일) 가기로 한 천문관측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지원 선생님이 지난 주말 결혼식 후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신 상황이어서 회장인 정수는 동아리 부회장인 3학년 다빈과 급하게 의논하여 이번 천문동아리 행사를 원래 계획했던 야외천문관측 장소가 아닌 학교에서 시내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시립천문대로 변경했습니다. 시립천문대는 동아리 회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장소일 수 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24시간 전 단체예약팀에 한 해 천문대 직원의 안내와 함께 천문대가 1개월 전에 새로 구입한 망원경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p>정수는 어제(5월 13일) 오후 5시에 변경된 계획을 동아리 단체특방을 통해 안지원 선생님과 회원들에게 알리고, 전세버스의 취소와 시립천문대 단체예약은 총무인 2학년 경민에게 단체특방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단체특방의 메시지는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지금은 5월 14일 오후 4시이고, 정수는 10분 전 휴식시간에 동아리 부회장 다빈으로부터 총무 경민이가 어제 오전 등굣길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며, 단체특방을 통해 지시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았더라도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p>
질문	<p>당신이 정수라면..</p> <p>문제 1) <u>지금 가장 먼저 확인하고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u></p> <p>문제 2) <u>현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u></p> <p>문제 3) <u>안지원 선생님에게는 언제 어떻게 연락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까?</u></p>

학업 외 역량	2023학년도 학사과정 학업외역량 공통문제(2)
	학교장추천 · 고른기회전형

문제	<p>모든 것은 농담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스웨덴 칼스코가시의 공무원들은 성평등 지침에 따라 모든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했다. 이 엄정한 잣대에 의해 정책 하나하나가 평가받는 동안 한 불운한 공무원이 웃으면서, 적어도 제설 작업은 ‘젠더 감시단’이 건들지 않을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안됐지만 그의 말을 듣고 젠더 감시단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됐다. 제설은 성차별적인가?</p> <p>당시 스웨덴 칼스코가시의 제설 작업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도로에서 시작해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의 이동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p> <p>장기간에 걸친 성별 구분 데이터는 어느 국가에서도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여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남자들보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3분의 2가 여자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의 경우 그 수치는 각각 64%와 62%다. 한편 남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직접 운전하는 경향이 높고 자가용을 소유한 가구에서는 남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다.</p> <p>이동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동하는 이유 또한 다르다. 남자들은 아주 단순한 이동 패턴을 보인다. 하루에 두 번, 시내로 들어왔다가 시외로 나간다. 하지만 여자들의 이동 패턴은 좀 더 복잡하다. 여자가 세계 무급 돌봄노동의 75%를 담당한다는 사실이 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여성의 전형적인 이동 패턴에는 출근길에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노인 가족을 병원에 데려다주기, 퇴근길에 장보기가 포함된다. 이것을 연쇄 이동이라고 한다. 여러 번의 짧은 이동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패턴으로, 전 세계 여자들에게서 관찰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저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발췌 및 일부변형></p>
질문	<p>위의 지문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p> <p>문제 1) ‘젠더 감시단’은 왜 제설 작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는가?</p> <p>문제 2) 칼스코가시의 그 불운한 공무원은 ‘젠더 감시단’과의 대화 끝에 다음의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제설 순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나요?” 당신이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의원이라면 어떻게 답하겠는가?</p> <p>문제 3) 이번에는 본인이 한국 제주도 서귀포시의 시의원이라고 하자. 서귀포시에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약 8cm의 눈이 내렸다면 제설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겠는가?</p>